

퇴진 선언 → 과도 내각 → 조기 대선

3野 '질서있는 퇴진' 靑 압박

국정혼란 최소화 위해 퇴진 일정 확실히 밝히고 대선 준비
새누리 비박도 퇴진 의견... 청와대 "헌법에 임기 보장" 반박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으로 박근혜 대통령 퇴진 여론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여야 정치권에서 '질서있는 퇴진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관련기사 3·4면>
국민의당에 이어 민주당이 지난 14일 '질서있는 퇴진론'을 당론으로 정했으며,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박 대통령 퇴진에 대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질서 있는 퇴진론'은 박 대통령의 퇴진으로 일어날 수 있는 국정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퇴진 일정 등을 확실하게 밝히고, 그에 맞춰 조기 대선을 준비하자는 방안이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정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주당은 '질서 있는 퇴진론'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어제 더불어민주당은 2선 후퇴론을 폐기하고 대통령 퇴진론을 당론으로 결정했다"며 "이 같은 당론은 100만 촛불민심의 대통령의 하야와 탄핵을 요구하는 65% 이상 국민의 민심을 반영해 당의 입장을 정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대통령은 민심에 귀 기울여야 한다. '대통령이 그 자리에 계속 계시는 것이 오히려 국정 혼란'이라고 말하는 많은 국민의 여론을 가슴 깊이 새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전 대표도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하고 박 대통령 퇴진 촉구 대열에 뛰어들며 당론 결정을 힘써왔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박 대통령이 조건 없는 퇴진을 선언할 때까지 저는 국민과 함께 전국적인 퇴진운동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늦

었지만 대통령 퇴진운동에 동참하겠다고 선언한 것을 환영한다"면서 "저는 거듭 대통령의 탈당, 4차 영수회담을 통한 국무총리 추천, '최순실-우병우 사단'을 제거한 인적 청산 및 조각을 통한 거국중립내각 구성, 대통령의 검찰 수사, 국정조사, 별도 특별검사 수사를 통한 질서있는 퇴진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고 말했다.
여당 내에서도 박 대통령 퇴진론이 확산하고 있다.
여당 원내인 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지난 14일 "(박 대통령) 지금 시점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이라면 질서있는 하야"라며 박 대통령의 '단계적 퇴진'을 요구했다.
지난 13일 새누리당 비주류 의원들과 당 소속 시도지사, 원외 당협위원장 등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비상시국회의'에서도 박 대통령의 퇴진과 하야, 탄핵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청와대는 여전히 '퇴진론'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당장 대통령이 하야하는 것은 정국 혼란을 키우고 현실성도 없다는 이유에서다. 정치권에서 분출되고 있는 '질서있는 퇴진론'에 대해 청와대는 박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해 대선을 조기에 진행하자는 것으로 이를 위해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5년 임기를 단축하는 것에 대해 사실상 '불가' 입장을 보였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모든 해결 방안은 법적 테두리 내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질서있는 퇴진"이라고 하지만 헌법에 관련해 어떻게 할 수 있다고 규칙이 있는 게 아니다"면서 "하야나 퇴진은 헌법 정신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박근혜 퇴진” 농기계 진격투쟁 전국농민회총연맹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광주·전남연합 농민들이 15일 오전 해남군청 앞에서 '최순실 게이트' 관련 농기계 진격투쟁 출정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고 있다. 농민들은 전북과 충남을 거쳐 서울 청와대 앞으로 25일 집결할 예정이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잇따른 흥기난동 불안한 시민들 ▶6면
바다 르네상스 - 강진 마량항 ▶18면

주택용 전기료 누진 구간 6단계 → 3단계 축소
당정, 12월부터 적용
새누리당과 정부는 15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회의를 하고 주택용 전기요금의 누진 구간을 현행 6단계에서 3단계 수준으로 축

소한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당은 이날 회의에서 "(누진구간 현행 6단계는) 3단계 정도로 돼야 하고 더 높아져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정부에 전했으며, 정부도 이런 내용을 담아서 정부안을 만들어

오늘부터 국회 예산안 증액 심사

광주·전남 현안 국비확보 총력전

내년도 국회 예산심의 앞두고 정부 예산안에서 누락된 광주·전남 주요 현안사업 국비의 추가 반영 노력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관련기사 2면>
특히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로 정국이 혼란에 빠지면서 지역 현안들이 또 다시 뒷전으로 밀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감이 나오면서 광주시와 전남도를 비롯한 지역 정치권의 노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15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국회는 이르면 16일부터 예산안 조정소위원회 열어 본격적 증액 심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에 따라 광주시와 전남도는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국비 추가 반영을 위해 여야를 넘나들며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광주의 경우 민선 6기 최대 현안사업으로 꼽고 있는 친환경자동차 부품클러스터 조성 사업(403억원)과 광주시민들

의 열린 사업인 무등산 정상 군부대 이전(50억원) 사업 등이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으면서 추가 반영이 절실한 상황이다. 전남도도 최대 현안인 무안공항 활성화를 위한 활주로 확장(20억원)과 해양수산 융복합벨트 조성(36억원) 등 경제·관광 관련 SOC(사회간접자본시설) 관련 사업비들이 대부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아 막바지 국비 확보에 올인하고 있다.
하지만, 세수 부족과 정부의 지출 구조조정 등으로 인해 정부가 신규 사업을 억제하고, 기존 추진 사업들에 대해서도 국비 부담을 줄이면서 오히려 지난해보다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따라서 국회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지역 현안사업의 국비 반영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지역 정치권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최원일기자 cki@kwangju.co.kr

삼성전자 車 전자장비 전문기업 '하만' 인수

광주시, 전장사업 유치 적극 나선다

삼성전자가 80억 달러(9조3384억원)를 투자해 미국의 자동차 전장(電裝·전자장비) 전문기업 '하만(HARMAN)'을 인수하기로 함에 따라 '친환경 자동차 부품 클러스터 조성'에 주력하고 있는 광주시의 전장사업 유치가 탄력을 받을 지 주목된다.
15일 광주시와 경제계 등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전미 미국의 자동차 전장·오디오 전문기업 '하만'을 80억 달러에 인수, 합병하기로 했다. 삼성전자는 이번 인수를 통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을 중심으로 해온 전장사업 범위를 대폭 확대, 전장사업분야 토털 솔루션 기업으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한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삼성전자 자동차 전장사업은 지난 1월 윤장현 광주시장이 광주 가전라인 이전의 대안으로 삼성전자에 제안하면서 부상했다. 이어 4·13 총선과정에서 삼성 전자 상무출신인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광주 서구출신인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삼성전자 전장사업 진출 의지가 실제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다"면서 "민주당도 호남 비전위원회에서 광주유치를 적극적으로 다뤄지도록 할 것이며, 광주시도 유치를 위한 그림을 잘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삼성의 전장사업 진출은 현실화 됐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삼성전자 전장사업 유치가 적극 나설 계획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광주의 전장 분야 육성 관련 용역을 의뢰해 놓은 상태"라며 "특히 삼성전자 공장과 기아자동차 완성차 공장이 있는데다 친환경 자동차를 주도하고 있는 만큼 자동차와 가전 모두 전장분야가 필요한 분야여서 광주가 어떤 도시보다 경쟁력 우위에 있다"고 밝혔다.
지난 4·13 총선에서 공약을 내걸었던 양 최고위원도 "삼성전자 전장사업 진출 의지가 실제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다"면서 "민주당도 호남 비전위원회에서 광주유치를 적극적으로 다뤄지도록 할 것이며, 광주시도 유치를 위한 그림을 잘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원일기자 cki@kwangju.co.kr

50-YEAR
Ginseng Research

Sulwhasoo



피부 자생력과 방어력을 키우는 인삼의 힘으로
스스로 살아나는 피부활력을 누리다

설화수 자음생크림

천천히 변화를 겪는 피부는 어느 순간 크게 힘을 잃습니다
피부노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힘을 전하는 설화수 자음생크림
인삼 꽃의 응축된 힘으로 방어력을 강화해 피부 손상 예방에 도움을 주고 인삼 뿌리의 강력한 효능 성분으로
피부의 자생력을 높여줍니다. 더욱 강화된 인삼결정체로 스스로 살아나는 피부활력을 누리세요

1966년 설화수 브랜드의 모태인 ABC인삼크림이 탄생되었으며, 이후로 50년간 인삼연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유명백화점이나 이모레 카운셀러를 통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www.sulwhasoo.com ·www.facebook.com/sulwhasoo.official ·고객상담실: 080-023-5454 (수신료 요금부담)